

## 스웨덴의 에너지政策

1990년말에 스웨덴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변화를 여론조사나 정치적인 논쟁에서 볼 수 있었다. 소수여당인 사회민주당의 반핵노선도 당내 노조간부들의 정치적인 압력때문에 많이 완화되었다.

1990년 11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1995년에 시작되는 원전의 조기폐쇄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사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스웨덴의 12기의 원전이 안전하고 경제적인 것이라면 2010년 이후까지도 이를 사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론조사에서의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원자력발전소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관한 것이었다.

「당신의 거주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선정된다면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

작년 10월 사회민주당은 비사회주의 정당인 자유당(원자력발전에 대해 중립노선)과 중앙당(반핵)과 새로운 에너지정책에 관한 협상을 벌였다. 이 협상은 몇번 결렬될뻔 했으나 1991년 1월 15일 3당은 새로운 에너지정책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3당간의 합의내용을 보면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인 폐쇄는 2년전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1995년에 시작하지 않는다고 되어있고 폐쇄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 합의내용에는 현재 가동중인 12기의 원자력발전소(총 10,000MWe)의 운전시한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그러나 사민당과 중앙당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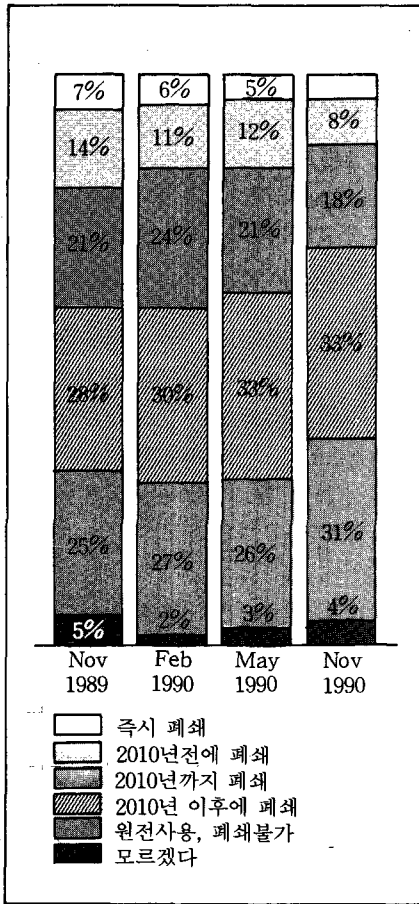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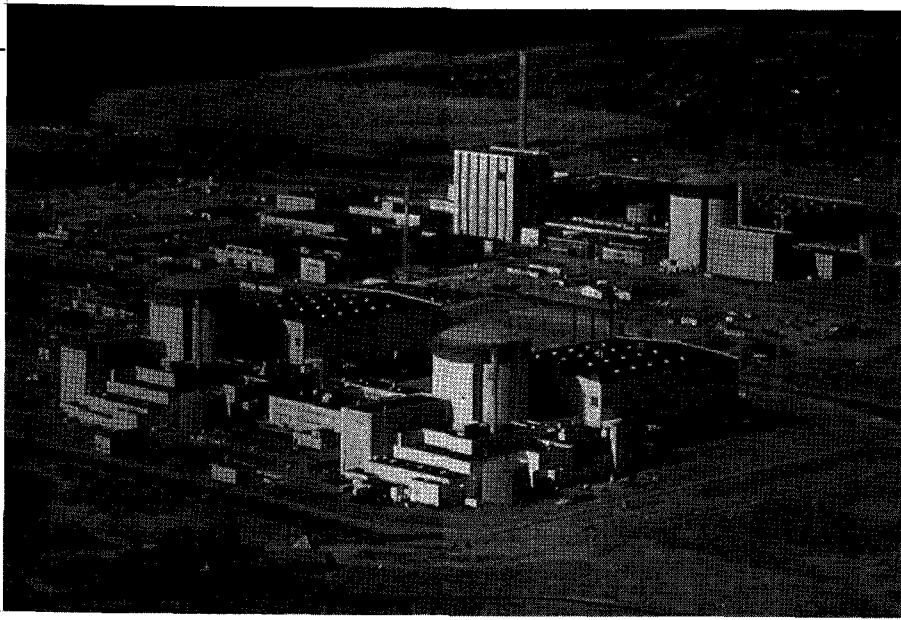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통해 2010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당은 경제적인 이유로 2010년 이후에도 운전을 계속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새로운 합의내용에 따라 3당은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주로 bioenergy와 풍력)과 에너지절약기술의 개발을 위한 5개년계획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의 총소요자금은 38억 크로나(7억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원자력발전소 폐쇄를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존 원자력발전소는 계속 가동될 것이라고 3당간의 새로운 합의내용은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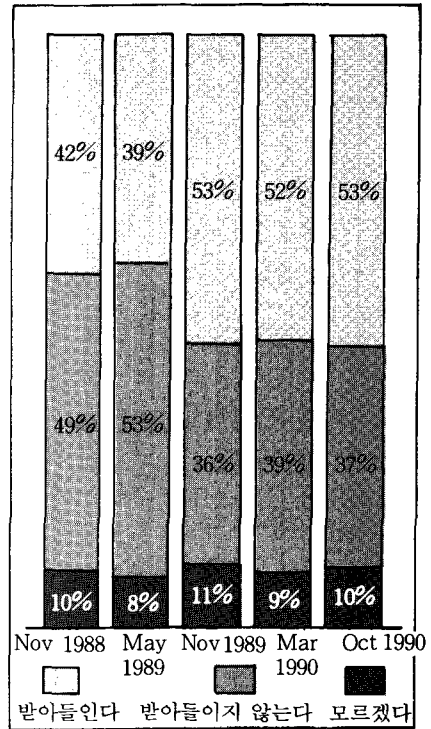
정부는 금년 2월20일 3당간의 합의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총선거는 1991년 9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에너지정책에 합의를 본 3당은 유권자의 70%를 대표하고 있는데 총선후에도 국민의 대다수를 대표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따라서 1976년 이후 처음으로 스웨덴의회내서 안정된 에너지정책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돼있는 셈이다. 1976년 당시에는 원자력발전이 큰 정치적인 이슈가 돼있었으나 지금은 이러한 의회내 분위기 때문에 에너지정책은 이번 가을의 선거 운동에서는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스웨덴은 2000년까지 신규의 대형 발전소 건설이 필요없고 1995년 이후에도 에너지정



책에 관한 별다른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산업계는 이 3당간의 합의내용을 안도의 눈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산업발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제거되었지만 이 3당간의 합의는 시작에 불과하다. 어쨌든 앞으로 스웨덴의 에너지정책은 보다 더 안정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